

“단순·충직하게 회무에 힘쓰자” 정·관계 인사 150여명 참석 ‘성료’ / 치협 신년교례회

“병술년 새해는 개처럼 단순하고 충직하게 회무에 임하겠습니다.”

치협 신년교례회가 정·관계인사 및 치과계 원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6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교례회에서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병술년 한해 치과계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병술년 새해는 개처럼 단순하고 충직하게 회무에 임하겠다”며 “회원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위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과 치협 회원들을 위해 전임직원이 열심히 뛰겠다. 많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안성모 집행부는 취임직후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연봉제 도입,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사상 초유의 자율수가계약 체결 등 많은 일들을 의욕적으로 해 왔다”고 치하하며 “앞으로 의료광고 허용, 경제특구 등 의료 시장 개방을 통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 서라도 정책연구소를 반드시 만들고 치협 중심으로 치과계 중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해 공단과 요양급 여단체간 자율적인 수가체결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

범을 보여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고 “장관이 오실 때까지 한 달여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치단결해 일하겠다”며 금년 한해 치과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문병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열린우리당)은 “새로운 장관 내정자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지만, 청와대 독주에 대한 우려가 문제지 유시민 내정자 개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 내정자가 앞으로 복지와 의료정책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의료계가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는 의료계와 치과계 모두 경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한해였다”며 “올해도 의료시장 개방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치과계를 포함한 범 의료계가 공동 대처해 관련 현안을 풀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신년교례회에서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엄중희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의 덕담이 이어졌으며, 치협 집행부 전임원들이 신년인사를 통해 올 한해도 회무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또 케익 절단과 지현택·김정균 치협 고문, 황규선 전의원의 건배제의로 참석자 전원이 병술년 한해 치과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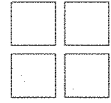
“3박4일간 수고합니다” 안 협회장, 국시 출제위원 격려

안성모 협회장은 1월 16일 치과 의사 국가시험 출제장인 한강 호텔을 방문해 19일까지 3박 4일간 수고하는 출제위원들을 격려했다.

안 협회장은 “훌륭한 치과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교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협회에서는 국립치대 독립법인화 등 제도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교수들은 교육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해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들을 배출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협회장은 또 “외국치대 졸업생들의 경우 올해 처음 예비시험을 치러 보다 정예화된 치과 의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며 “치과 의사 국가시험도 앞으로 질적, 제도적으로 계속 발전해 보다 훌륭한 치과 의사가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 의사 국가시험은 1월 19일 덕수정보고등학교에서 치러졌다.



치과의료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치협 산하 '태스크포스팀' 구성한다

치과의료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치협 산하에 구성된다.

치협은 1월 4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치과의료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의료산업 및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참여, 치과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앞서 제시하고 관련 안이 정부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과계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일단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 R&D 산업 활성화 ▲치과의료 및 정보시스템 표준화 등 치과의료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이 같은 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치협 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명진 서울대치과병원 진료처장은 "그동안 정부차원서 치과분야를 지원한 것이 전무했다"고 토로하면서 "형태가 어떻게 됐든 이번 정부에서 치과의료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정부당국 및 의료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치과의료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치과계 많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치과의료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안들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성모 협회장, 전민용 치무이사, 신호성 기획이사, 김주심 복지부 구강보건팀 사무관, 강동완 조선치대 교수, 김명진 서울대치과병원 진료처장, 이장희 서울치대 연구부회장, 허민석 서울치대 교수, 이삼선 서울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폭설 피해 농민들에게 희망되길... 안 협회장, 고창등 3곳 각각 5백만원 성금 전달

안성모 협회장은 1월 21일 지난해 말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고창군을 비롯, 부안군, 정읍시 등 3곳을 방문해 각각 5백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안 협회장은 먼저 정읍시청을 방문해 유성업 시장을 만나 폭설피해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이어 고창군청(군수 이강수)과 부안군청(군수 김종규)도 방문해 역시 위로의 말과 함께 5백만원의 성금을 각각 전달했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논과 밭을 비롯해 축사, 비닐하우스, 도로 등 군내 대다수 시설들이 폭설로 인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컸다"며 "현재도 복구작업을 벌이

고 있으며 하루빨리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협회장은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등 특히 3곳은 지난해 말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인해 안 그래도 어려운 농가의 시름이 더욱 클 것"이라며 "이번 성금이 작으나마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고창·부안 지역 국회의원인 김춘진 보건복지위 의원을 포함해 김종환 전북지부 회장, 김성욱 치협 총무이사, 진근호 전북지부 총무이사, 임종혁(고창군)·신영근(부안군)·최정호(정읍시) 분회장 등도 함께 피해지역을 방문, 위로했다.